

# “1석 줄어든 전북 9석은 없다”

민주 이원택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최근 지역 내 최대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1석이 줄어든 전북 9석은 없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내 공항과 항만, 철도 등이 빠진 개발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반드시 국회단체에서의 SOC 예산 복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여당에 유리한 의견만 반영한 것”이라고 규정할 후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여당에 왜 부담한지를 설명했고 현재 비공개로 협상에 들어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규정상 정개특위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재회부 절차를 걸쳐 획정안을 요청할 수

“새만금 내 공항·항만 등 빠진 개발 ‘앙꼬 없는 찐빵’ SOC 예산 삭감, 원칙적으로 수용 못해... 반드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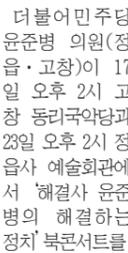
있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회의에서 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부결될 경우 경과 규정 미비

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협상’ 등 또다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이를 위해 전라기획위원장인 한병도 도당위원장, 김운덕 조직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연내 협상을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이 의원은 “SOC 예산이 삭감되는 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부산엑스포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에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가 일관되게 가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못 갈 명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를 그런 입장에서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켜가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새만금 예산 협상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자신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새만금 공항과 항만, 철도 예산 복원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서 북 콘서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7일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과 23일 오후 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해결하는 정치’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책은 정읍·고창의 해결사이자, 국정의 해결사로서 윤 의원의 지역적 특색을 해결하는 과정과 그동안 발의한 법안, 예산 확보에 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윤 의원의 진솔한 생각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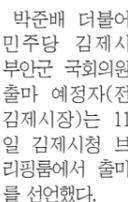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되며, 저자와의 대화, 시인회, 포토타임 등으로 윤 의원과 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윤 의원은 지난 시간 동안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정읍·고창의 특색을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예산안 장물보다 높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앞으로는 해결을 넘어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 “소멸 위기 김제·부안을 경제 도약 도시로”

박준배 전 김제시장, 민주당 소속 김제·부안 출마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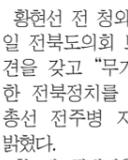
박준배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부안군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전 김제시장)는 11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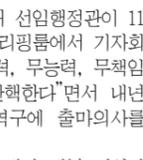
으로 △출퇴근 가능도로 서울~김제역간 1시간대 KTX 유치 △부안지역에 100만평 신재생 포함 미래 첨단산업 단지 건설로 청장년 일자리 창출 △새만금에 우주선 공항과 2040 세계박람회 유치 △청년 취업, 결혼, 출산 양육, 주거 지원 등에 1억 원 내외로 하여 출산율 향상 △정의에 부합하도록 농지법 등 경제법령 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위대한 한국을 만드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무기력·무능력·무책임 정치 끝내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주병 출마 선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한 전북정치를 탄핵한다”면서 내년 총선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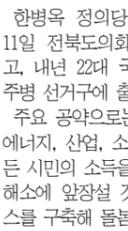


황 전 행정관은 내년 전북 예산에 직격탄이 될 예산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독재 방지법(별칭)’ 제정으로 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등 전체 지출한도와 재정총량을 예산 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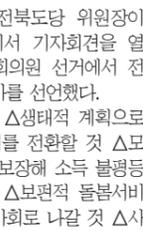
사만금사업과 같은 장기 국책사업 관련 예산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지출이 급격히 변경될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 심의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법 및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검찰개혁의 핵심적 과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 “전주서 다당제 민주주의 꽃피울 수 있도록”

한병욱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전주병 출마



한병욱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를 전환할 것 △모든 시민의 소득을 보장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앞장설 것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돌봄사회로 나갈 것 △사회적 소외와 공적 투자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대체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특히 소득불평등의 경우 병원비 상한제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전국민추위의제도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편적 최저 소득 보장과 기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전북미래의료포럼 출범 1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전북대 석좌교수),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최경식 남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전북 의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전북미래의료포럼'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경찰, 내년 총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범죄 집중 단속  
선관위 해킹 등 공정선거기반 약화에 엄정 대응

전북경찰청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 운영한다. 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

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지도

스 공역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 부안군의회, 예산 심사서 “군정 개선 방안 내놓아야”

의안심의 중 질책 잇따라... 내년도 군 예산 방향 가능할 수 없게 돼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의안심의 진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안심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 방향을 가능할 수가 없게 됐다. 특히, 교육청소년과 A과장이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발전기금 5억3,000만원의 이차수입을 통해 2022년 600만원, 2023년 400만원으로 존속기금 5년 연장을 놓고 1건사업을 하면서 사업저조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지적, 폐기하고자 한 것을 김두레 의원이 2년으로 단축해 수명유지만 했다는 것. 이어 박병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

이 양성평등이 성을 합쳐 양성평등사업 과정에서 군에서는 남녀 비율을 맞춰야하는 행사를 여성만 하는 게 맞는 행사냐고 담당과장과 팀장에게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질타를 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은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대해서도 수련원을 이용하는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방학 때 활용 부진 등 시설비는 13억원이 들어갔는데 세외수입은 딱갈거나 줄고 있다며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없고, 예산만 적자내는 시설이 되어야 하느냐 참으로 고민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김두레 의원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성과지표 만족도 성과계획서를 합리적인 목표

치 제시를 해야한다는 것에 비해 의원들의 눈거리는 자료를 내놓고, 목표치 100%를 잡고 해야할 것을 낮은 실적을 감추기위해 2021년도 목표와 실적을 62%로 잡고 62%로 100%달성, 2022년도 64%를 64%로 2023년도 65%를 65%로 포기하겠다는 지적이 이어지면 서 공분을 사고 있다. 부안군의원들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니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번 예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부안군 예산 규모는 7991억원으로 올해보다 4.93% 늘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낭비성 예산을 삭감한 뒤 14일 예산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이웃들에게 큰 힘”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11일 의장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라북도협의회장 정하복 회장이 참석했다.

국주 의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렵겠지만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2023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